

KISA, 방화벽 평가기준안 발표

7단계로 평가, 외산방화벽 공급업체들 ... 대책마련 고심

한국정보보호센터(KISA)가 3월 14일 방화벽 시스템의 평가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방화벽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설명회에서 KISA는 보안기능과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본 구조로 평가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여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방화벽에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안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외산방화벽을 수입·공급해왔던 업체들은 이 평가기준안에 따른 보다 나은 평가등급을 받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KISA는 각종 해킹, 컴퓨터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을 지원하고, 보호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등급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이와 같은 평가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평가기준에 따르면 보안기능과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기본 구조로 각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7개 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불법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기능을 제공하는 비밀성 항목을 두어 등급 뒤에 E자를 붙여 비밀성 제공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된 것은 작년 7월이었고, 당시의 이 발표를 접한 관계자들은 국산 방화벽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외산 방화벽을 국내 주요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정작 평가기준안이 나온 이후 외산방화벽 수입업체들은 당황

하는 빛이 역력하다. 평가기준안을 살펴보면 만족할만한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방화벽의 소스코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시장을 보고 소스코드를 주겠나?

평가등급 체계를 보면 K1(최저등급)부터 K7(최고등급)까지 7개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등급은 보안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인 신분확인, 접근통제, 무결성, 비밀성, 감사기록 및 추적, 보안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부분과 보증 요구사항인 개발, 시험, 형상관리, 개발 및 운용환경, 설명서, 취약성 등 6개 항목에 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K4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함량미달의 방화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 왜냐하면 K4 등급을 받으려면 방화벽의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의 상세설계 분석, 주석 등을 붙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스코드를 제출한다는 것은 방화벽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백도어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K4 등급을 받게 된다면 안전도에 있어 보증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여기서 외산방화벽 수입업체들의 딜레마는 생겨나는 것이다. 자신들이 수입해 오는 방화벽시스템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소개해왔는데 국내에서 인증받기 위해 소스코드를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작년 국내 방화벽 시장의 매출규모는 40억원내외에 불과하고 이 매출은 10여개 방화벽을 통해 기록한 것이어서 아직은 미미한 상태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외산방화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이 형편없는 규모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런 작은 시장을 바라보고 외산방화벽 개발업체들이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선뜻 내줄지는 미지수다.

혹여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라도 소스코드의 상세설계나 주석을 다는 일은 개발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점을 미루어보면 K4 등급을 받기 위해 소스코드를 제출하는 일은 외산방화벽 수입업체들에게는 난관일 수밖에 없다.

한 외산방화벽 공급업체의 관계자는 "한마디로 대책이 안선다"는 말로 당혹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일이 이쯤 되면 외산방화벽은 갖다 팔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고 자조섞인 항변을 했다.

또다른 외산방화벽 공급업체의 관

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화벽이 국내에서 인증받기 위한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만큼 결국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여유를 남겼다.

방화벽 평가 제도는 '정당방위'의 개념

외산방화벽 공급업체들에게 있어서 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국가 정보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방화벽 평가기준안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TCSEC라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현재는 CC), 이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이 평가기준을 갖고 있고, 국내의 평가기준은 세계 7번째가 된다.

현재까지 국내 정보보안의 현실은 우리 보안을 외산 제품에 맡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허술한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암호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잘 알려진 미국의 암호기술 수출 정책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자성의 소리가 높았었다.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이제 정보보호는 곧 국가 안보수준의 중대사가 되고 있고,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보보호를 위해 자국의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이러한 정보보호의 대책 부재라는 것은 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국 국내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보보호 정책에 입각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평가기준안에 따라 등급체계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에서 어떤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를 국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방화벽 시장은 완전 재편될 듯

이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이 부여되게 되면 국내 방화벽 시장은 완전히 현재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러한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산방화벽을 공급하는 한 업체는 그동안 꾸준히 영업을 벌여왔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벽 공급이 거의 결정된 상황이었는 데 이번 평가기준안 발표에 따라 일체의 도입이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방화벽 설치를 고려하던 업체들이 대부분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단 외산방화벽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소스코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업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외산방화벽의 소스코드 제출이 힘들다고 가정할 때 외산방화벽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KISA가 K3이상의 등급을 '적용가능'이라는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KISA에서는 국내에서 하나의 방화벽을 여러 딜러가 공급할 경우 소스코드를 제출한 딜러에게만 해당등급을 주기로 함으로써 같은 방화벽을 공급하는 딜러들 간에도 서로를 경계하는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똑같은 입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어느 업체가 소스코드를 제출하면 그 업체에게만 등급을 주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업체는 아예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준을 뒤집을 수 없는 노릇. 각자의 입장차이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저 푸념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외산방화벽 공급업체의 고심과는 달리 다소 느긋한 심정을 가진 것은 국산 방화벽을 개발한 업체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사의 방화벽이 KISA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판단에다 소스코드와 상세설계, 주석 등을 다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CGII(대표 김호성)의 '수호신'의 경우는 평가받는데 걸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CGII의 김호성 사장은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책은 국내 기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CGII의 기본 사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평가안에 대해 "수호신이 단순히 국산이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화벽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한다.

여하튼 이제까지 외산방화벽 일색의 시장은 KISA의 평가를 통해 국산방화벽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빛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